

# ‘정윤희 블랙홀’ 여야 합의도 빨아들이나

### 박대통령 ‘찌라시 이야기’ 일축에 여야, 본회의 취소... 정면충돌 양상 15일 임시국회도 ‘문건정국’ 예고

정윤희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비선 실세’ 공방이 격화하면서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8~9일 이틀간의 본회의를 통해 무려 300여 건의 본회의·상임위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여권의 계획도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찌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일축한데 반발한 야당이 문건에 등장하는 정윤희 씨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모두 12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함으로써 정국의 대치 상황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자칫 9일 본회의마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문건 파동은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입법적 뒷받침 작업을 물론 민생 관련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추가 고발에 대해 “도

를 넘었다. 야당의 냉정한 이성화 합리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대야 공세는 강도가 커지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박 대통령의 반박에 대해 “누가 봐도 공공기록물인데 무슨 ‘찌라시’ 타령이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개헌파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원인과 관련, “문건의 근원에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가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라며 개헌 논의에 당장 착수할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9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일명 권피야 방지법), ‘세 모너 3법’

등 기존에 합의한 일부 민생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 박 대통령의 3대 핵심 과제와 부동산 활성화 법안 등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정기국회 폐회 이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까지 이른바 ‘문건 정국’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주요 쟁점 법안들은 해를 넘길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임시국회 첫날과 둘째 날은 문건 유출을 의제로 한정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한 만큼 임시국회가 초반부터 공전과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비선실세’ 규명 집중 새정치, 전당대회 일정 당권주자들 사퇴 연기

정윤희씨 등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논란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일정 및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이번 주 사퇴할 것으로 전망됐던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비대위원 등 당권주자 ‘빅 3’의 사퇴 시점이 17일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15~16일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펼쳐질 비선 실세 의혹에 관한 대야공세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다. 당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비대위원들이 중도 사퇴하면 지도부 공백으로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선거인단 구성비와 권역별 최고위원제 도입 등 전대 경선 룰에 관한 당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점도 비대위원 사퇴 시점 연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과 예비경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는 전대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 주 중반에는 사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권 주자 ‘빅 3’로 꼽히는 비대위원들의 출마 여부와 전대 룰 결정 내용을 보고 최종 결심을 하려던 ‘다크호스’들의 결단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비노(비노무현) 측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의원과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다. 특히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이 블랙홀처럼 모든 정국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노 당권 주자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있다. 친노 패권주의 타파에 대한 당원들과 민심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박주선, 김동철, 김영환 의원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비노 진영 당권 주자들의 단일화 논의에 나섰다. 한편 당내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들은 오는 12일 회동을 갖고 전당대회 룰과 단일화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모범·우수의원 광주·전남 5명 선정 전국 ‘NGO모니터단’ 평가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주관하는 2014년 국감 모범의원과 우수의원에 광주·전남에서는 5명 의원이 선정됐다. 8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감 모범의원상, 박지원(법사위)·주승용(안행위)·강기정(정무위)·박해자(여성가족위) 의원이 국감 우수의원상을 각각 받았다.



문희상·이완구 백봉신사상 ‘제 16회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백봉 라웅균 선생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시상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들 외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김세연 의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문재인·안철수·박수현 의원 등 모두 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 ‘비선실세’ 의혹 여당내 목소리 커진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 ‘측근 실세’들의 국정 개입 논란에 대한 기류 변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과 ‘청와대 문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이어 당내 쇠신 모임에서도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쇠신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8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2014년 12월 9일 ‘2+2 연석회의’에서 연말 정국의 뇌관인 ‘청와대 문건’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2 연석회의’의 의제와 관련해 ‘청와대 문건 유출 얘기도 거론할 것이냐’는 질문에 “무슨 얘기도 다 나올 것”이라면서 “모든 논의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문제와 관련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 “국민적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빨리 진행돼 잘못 알려진 부분은 국민의 오해를 풀어 드리고,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김무성, ‘2+2 연석회의’서 靑문건 논의 시사 초·재선의원들 청와대 인사시스템 쇠신 요구

특히 새누리당의 초·재선 중심 쇠신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쇠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아침소리’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낮고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드시 국정운영 쇠신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이를 통해 청와대의 인사 및 인사시스템을 혁신하고, 이후 대내외적 소통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의 소통강화 방안으로 ▲서면보고 최소화하고 대면보고 일상화 ▲수석 및 장관들과의 보다 빈번한 공식회의 개최 ▲수석 비서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의 소통 강화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정례화 ▲당·정·청 협의체 정례화 등에 공감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또 “인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해 특정 인사에 대해 누가 추천했는지 등을 공개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인당 한도 **최고 28억원까지 가능**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학부      ▶정시모집

| 계열 | 모집학과      | 모집인원 |
|----|-----------|------|
| 인문 | 신 학 과     | 12   |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3    |
| 사회 | 사회복지상담학과  | 2    |
| 사범 | 유아교육과     | 3    |
| 예능 | 음악학과      | 5    |
|    | 실용음악학과    | 3    |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② 원서접수: 2014. 12. 19(금) ~24(수)  
 ③ 전 형 일: 2015. 1. 6(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도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